

당신을 보았습니다

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/.....
...../저녁 꺼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主人이 「거지는 人格이 없다. 人格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.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」고 말하셨습니다 /그말을 듣고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.

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民籍이 없습니다 /「民籍없는 者는 人權이 없다. 人權없는 너에게 무슨 貞操냐」하고 능욕하려는 將軍이 있었습니다 /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.

아 아 온갖 倫理, 道德, 法律은 칼과 黃金을 제사지내는 연기(烟氣)인줄 알았습니다 /永遠의 사랑을 받을까 人間歷史의 첫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서릴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.

——韓龍雲의 <당신을 보았습니다>——

나는 이 詩를 읽다가 그 <나>는 자주 요새 세상을 뜬 친구로 보이고 그 <나>가 본 <님>은 꼭 現存의 예수같아서 결국 이 詩에서 수난의 끝을 맺는 친구와 나의 님을 동시에 본 셈이다.